

## 치과 보철 기공물 제작실태 및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보철학 전공 배정수

저자는 치과보철기공물 제작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전국에서 현재 기공물제작에 종사하고 있는 기공사 14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367건의 설문지 중 비교적 내용이 충실한 284건을 대상으로, 기공물 제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고치야 할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의 규명과 결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그와 더불어 치과의사와 기공사 간의, 기술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인화 면에 있어서의 상호이해와 대화를 위해 기공사가 치과의사에게 바라는 의견들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응답자의 90.5%가 기공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공소의 소재지는 서울에 편중되어 있었고( 40.9%,  $P < 0.05$ ), 기공소내의 근무인원은 70.0%가 10명 미만이었으며(  $P < 0.01$ ) 대부분 15년 미만의 개업기간을 보였다( 75.9%).

2. 기공물제작에 있어 고정성 보철물의 치형삭성(die trimming) 과정과 가철성 국소의치설계의 주체, 총의치 보철물의 작업모형 상형(boxing)여부, 최후방경계설정 과정, 인공치선정과 배열, 교합제의 수정 그리고 은성의치(processed denture)의 교합기재장착(remounting) 과정 등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3. 기공물제작의뢰를 받을 때 의뢰서를 치과의사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경우는 절반 정도였고, 그나마 의뢰서의 내용은 매우 부실하여, 의뢰서 작성에 있어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기공물제작에 있어 기공사는 치과의사에게, 금합금 고정성 보철물과 가철성 보철물의 경우에 깨끗하고 정확한 인상을 채득해 줄 것과 도제소부전장 보철물의 경우에 충분한 양의 치아사제를 해 줄 것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5. 치과의사와 기공사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3.5%) 그 다음으로, 많은 대화와 그에 따른 상호이해를 희망하였다.